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영화 '아가씨'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찬욱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유의 영상미·복잡한 내면묘사 관심 집중

박찬욱 감독 '아가씨' 칸영화제 시사회

세번째 칸영화제 수상을 노리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그 정체를 공개했다. 14일 오전 8시30분(현지시간) 튀미에르 대극장과 드뷔시 극장에서 '아가씨'의 기자회견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아가씨'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인 이모부 고우즈키(조진웅)의 보호를 받는 히데코(김민희), 그리고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백작(정유진)과 백작의 의뢰를 받고 재산 탈취에 동참한 히데코의 동생(김태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사라 워터스의 '핑거스미스'를 원작으로 하지만 내용은 원작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전작 '올드 보이'가 일본의 동명 만화로부터 상황 설정과 제목만 빌려온 뿐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지만 이번 '아가씨'도 박찬욱 감독만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영화는 인물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시점 쇼트를 종종 사용한다. '아가씨'는 또한 의상, 미술, 로케이션 등에 공들여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는 박 감독 특유의 영상미가 두드러졌다.

두 여배우의 성애 묘사도 파격적이다. 그동안 한국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노출 강도 높은 동성애 장면이 나온다. 영화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영화계 인사들이 '아가씨'에

대한 찬사를 전했다.

토론토영화제 카메론 베일리 집행위원장은 "너무나 인상적인 영화였다. 아직도 내 마음 속 울림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니스국제영화제 엘레나 폴라피 수석 프로그래머는 "이번 칸 영화제 초청작 중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라며 "예상을 넘는 파격에 놀라움을 느꼈다"고 평했다. 그는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은 꼭 베니스로 초청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 때에도 세계 각국에서 온 취재진은 '아가씨'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른 시각에 열린 기자회견에도 튀미에르 대극장과 드뷔시 극장은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유가 나오곤 하는 기자회견이지만 이날은 상영이 끝나자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할리우드리포터는 리뷰 기사를 통해 "박찬욱 감독의 정교한 영화 '아가씨'는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켰다"며 "재미있게 꼬인 에로틱 스릴러와 기본 좋은 놀라움으로 가득찬 러브 스토리로 인해 2시간30분이 금세 지나간다"고 평했다.

이어 "성인층을 위한 적나라한 노출과 도색적인 대사가 있지만 결코 전박하지 않

다"면서 "(박찬욱이) '올드 보이'의 감독임을 감안하면 폭력성도 직접적으로 스크린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 '아가씨'의 이야기가 "죄의식과 사랑이 계속해서 서로 반영하면서 무한하게 증식해 나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박 감독은 원작에서 인물의 입문과 감정 사이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선택의 딜레마에 주목했다고 한다.

'아가씨'는 조선과 일본, 유럽 등 이질적인 문화의 어우러짐도 두드러진다. 그는 "무작정 잡탕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 풍경, 근대가 도입된 풍경은 무엇인가, 그 원형은 무엇인가를 시작적으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며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음미해보려면 영화를 한 번 더 봐야 한다"고 웃었다.

영화에 일본 문화가 강하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 "시대가 이만큼 된 마당에 좀 더 내면적이고 복잡한 개인들의 관계를 표현한 영화가 나올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찬욱 감독은 "왜 그러지는 모르겠으나 동성애 코드에 거부감이 안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작품은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사람의 감정을 만들고 행복할 목표에 도달하는 영화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변화하는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관객들을 공감시킬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N '또 오해영' 서현진

능청 연기 공감 100%

유시진을 떠나 보내고 헛웃음을 이기지 못하던 여심이 마침내 안착할 곳을 찾았다. 시청자 마음을 빼앗은 드라마는 이름이 같은 동창 때문에 인생이 꼬인 여자 오해영의 이야기인 tvN '또 오해영'이다.

드라마는 평일 심야 시간대 방송된다는 약점에도 4회 만에 시청률 4%(닐슨코리아·유료플랫폼)를 돌파했다. 흥행의 중심에는 평범한 미혼 직장인 여성을 감칠맛 나게 연기하는 서현진(31·사진)이 있다.

◇ 능청스러운 일상적 연기에 박수 쏟아져
'그냥 오해영'은 못나지도 예쁘지도 않은 얼굴과 대담 성격 가진, 32살의 대기업 외식사업부 대리다. 오해영은 결혼 전 남편이라는 일생일대 비극을 겪지만, 이 또한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서현진은 이 평범한 캐릭터를 현실적으로, 아주 능청스럽게 연기한다. 그의 연기가 특히 돋보이는 것은 화면에 작게 잡히는 손짓, 입 모양 하나에서도 자연스러움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화제에 오른 남자가 음향감독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 '별남은 간다'에서 이거? 유지태?"라며 불마이코 드는 모습을 어설픔게 흉내 내는 장면이나 집 방법창이 사라지자 "방법창도 떼어가냐!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고 허공을 향해 악다구니를 쓰는 장면에서는 서현진과 오해영이 구분되지 않는다.

서현진의 고주파 연기엔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다가도 뒷안 상처에 눈물을 툭툭 흘릴 때는 파혼까지는 아니어도 이별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울컥하게 만든다.

오해영과 박도경(여리 분) 로맨스는 지나친 우연의 연속이고, 판타지도 강하다. 드라마가 현실에서 너무 뽐 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현진의 현실적인 연거다.

◇ 걸그룹 데뷔했지만 곧 해체...동명이인에 밀리기
서현진이 SM엔터테인먼트가 키운 걸그룹 밀크로 연예계 데뷔한 것은 16살 때였다. 그룹은 1년 남짓한 활동 끝에 해체됐고 서현진은 연기자로서 진로를 바꿨다.



그는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주연 무게감이 있는 배우는 아니었다. 오해영처럼 동명이인(서현진 전 MBC 아나운서)이 더 유명한 때도 있었다.

일부는 그를 MBC TV '신들의 만찬'(2012)이나 '불의 여신 정이'(2013)에서 주인공 성유리나 문근영을 괴롭히던 악역 정도로 기억했다.

특별할 것 없던 서현진의 연기 인생은 이른바 '떡방 드라마'로 유명한 tvN '식사를 합시다2'(2015)를 계기로 바뀌었다.

그는 식탐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어릴 적 '백대지'로 불리며 따돌림당한 상처 때문에 음식을 두려워하는 백수지를 실감 나게 연기했다.

◇ 김미경·예지원과 만나 활기 있는 연기
초반부 서현진 연기는 앙숙으로 등장하는 두 여자, 김미경과 예지원 덕분에 더 활기와 생기를 얻었다. 김미경은 '(예비신랑) 밥 먹는 게 꿀 보기가 싫어졌다'는 열도당도않은 이유로 결혼을 얹어놓고서도(엄마는 딸이 파혼당한 사실을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딸 오해영 때문에 역장이 무너지는 엄마로 등장한다.

평생을 약속한 남자에게 버림받았지만 속으로 울 수밖에 없는 딸과 그 상처를 알지 못하는 엄마가 치르는 전쟁은 포복절도할 코미디를 만들어 낸다.

장기인 4차원 캐릭터를 마음껏 연기 중인 예지원과의 호흡도 빠뜨릴 수 없다.

예원은 오해영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상사이자 박도경 누나인 박수경으로 등장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6일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25주년 특집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5·18특집 다큐멘터리 (올바른 오월통신)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웃집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5 세상발견 유레카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화 조들호)(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특 talk(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 특선 (방송의 진실)(재) 55 별별가족(재)		10 시사토끼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공지락	
2	00 명인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 5	00 KBC 창시자 2주년 특집 광주전남동요제 오월은 푸르구나(재)	
3	00 한국의 아성 50 안녕 우리말 55 트론생활체조	00 광주공부책상 위키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특!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동네스타 전국방송내보내기(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집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세종탄신 619돌 특집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공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동네변화 조들호)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2016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3부 (내 딸 미영이)	10 동상이몽 관객이 관중이	
12	20 해외결정드라마 (닥터 후 시즌8)	35 비바 K리그	20 MBC 뉴스 24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스포츠 특선 MLB 핫토크	30 나이트 라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05:00 EBS@ 생활 영어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별개 다 무서워)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김정은의 돼지고기 고추장찌개와 명란 달걀말이)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05:40 성공시대 기능 한국인 (고속철도 안전지킴이 - 철도신호개발 허남경)	11:00 세계테마기행(재)	15:30 꼬마기사 마이코	<적도의 낙원, 솔라웨이 1부 - 천국의 바다, 부니켄>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11:40 한국기행(재)	15:40 으랏차차 아이쿠	21:30 한국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2:00 EBS 정오 뉴스	16:00 캐니멀(재)	<천천히 걷다보면 1부 - 저 산이 오라고 손짓하네>
07:30 로보카 폴리	12:10 시대공간 (우리)	16:30 코코코 다큐	21:50 EBS 다큐 프라임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6:45 땡땡땡 유치원 1~3(재)	<공부의 배신부 - 명문대 누가 가는가>
08:00 땡땡땡 유치원 1~3	13:40 줄거은 수학 EBS MATH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2:45 달라졌어요
08:45 코코코 다큐	13:50 원더볼스(재)	17:45 로보카 폴리	23:35 시대공간
09:00 캐니멀	14:00 미술원정대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4	24:05 지식채널 e
09:30 원더볼즈	14:30 부릉부릉 부미미즈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24:10 EBS 특별기획 통찰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교부 열린 스페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6일(음 4월 10일 戊戌)	
子	48년생 처지와 정황을 감안하여 처신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60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72년생 가법계 여길 문제가 아니다. 84년생 마음을 타놓고 얘기해본다면 쉽게 합치하리라. 행운의 숫자 : 37, 38	午	42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4년생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만이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66년생 심사숙고해야 한다. 78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56, 02
丑	49년생 불타오르는 기세이므로 잘 살펴봐야겠다. 61년생 본디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73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궁 무진한 발전성이 보인다. 85년생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이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7, 01	未	43년생 마음이 설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55년생 기 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67년생 간발의 차이로 인해서 진입하지 못하리라. 79년생 적당히 있으면 미련 없이 버려라. 행운의 숫자 : 44, 15
寅	50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62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획기적인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74년생 행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86년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97	申	44년생 알면서도 소홀 한다면 악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56년생 반작용의 현상이 놀랄 수도 있다. 68년생 반복되는 횡수가 늘 어나면서 적응하게 되리라. 80년생 상대는 힌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38
卯	51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63년생 불투명한 형국에서 벗어나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75년생 피해를 볼 수도 있다. 87년생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63, 04	酉	45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편하겠다. 57년생 어느 누구에게나 이에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69년생 기세가 한창 성하여 극상에 이르렀다. 81년생 부담을 안고서라도 실행해야 할 한국이다. 행운의 숫자 : 95, 60
辰	40년생 시정하는 것이 옳다. 52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건조해 질 수도 있다. 64년생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다. 76년생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88년생 참신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27, 13	戌	46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한다. 58년생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70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82년생 객관적인 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9, 20
巳	41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야겠다. 53년생 행동력의 진기를 인식하게 되리라. 65년생 지출은 투자가 될 것이다. 77년생 지난 날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받는다. 89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0, 61	亥	47년생 과거에 대한 경험을 되살리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59년생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이가 보인다. 71년생 자원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83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9, 60